

중국 고대의 雨衣에 대한 史的 고찰

A Study on Rain Coat in Ancient China

박 춘 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Chun-Sun Park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s how a rain coat (雨衣) had developed in ancient China by searching through historic records. It can be said that people in ancient China wore two kinds of rain coats: straw coat (蓑衣) and oiled-cloth coat (油衣). Straw coat was originally used in the Spring and Autumn and Warring States period. Then, people used natural grasses to make it. As the overall production had increased, various kinds of rain coats began to appear in Tang (唐) Dynasty, and the straw coat itself became elaborate. In Song (宋) and Yuan (元) Dynasty, the straw coat was used for the army, and when it came to be Ming (明) and Qing (清) age, wearing it was considered a symbol of hermit. The straw coat shows the early form in the history of clothing, which was mostly put on by the poor. The material for straw coat was the grass which grows up in wet land area. People in the city and in the country had worn the straw coat for a long time. As foreign cultures were introduced, however, it disappeared first in cities and later in the country. The oiled-cloth coat was another of the kind. Its major material was water-proofed silk in the Qin(秦) and Han(漢) Dynasty. Also, it was a favorite of an emperor or aristocrats. Common people put on straw coat until the time the western rain coat was introduced and accepted in Qing Dynasty.

key words : rain coat(雨衣). straw coat(蓑衣). oiled cloth coat(油衣).

I. 서 론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사육신의 한 사람인 河緯地 (1387-1456)의 詩¹⁾에 “도롱이를 보내주심은 깊은 뜻이 있겠지요”라는 도롱이를 읊은 구절이 있다. 나아가 조선 전기의 학자인 호를 사옹(蓑翁)이라 한 金宏弼 (1454-1504)은 “삿갓세 도롱이 낚고”라는 시에서도 도롱이에 대한 표현이 있다.²⁾ 이외에도 많은 조선조 시인들은 도롱이·삿갓·가랑비를 시속에서 표제로 다루고 있다. 고대 우리의 조상들은 우천 시에 도롱이를 걸치고 삿갓을 쓰고 외출이나 농작 등에 종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롱이는 한자로 사의(蓑衣)라 하였으며, 벗집이나 띠 같은 풀을 엮어 빗물이 스며들어가지 않게 만든 雨衣였다. 도롱이를 엮을 때 줄기 끝 부분은 그대로 드리

워,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 겨를이 없이 줄기를 따라 땅으로 흘러내리게 하였다. 길이는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개 둔부선까지 내려오게 하고, 여기에 머리에는 어깨 너비 이상이 되는 너른 삿갓을 씌워서 우구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蓑衣가 있었다. 명대 각본인 <그림1 孔子聖蹟圖> 및 청대의 <그림2 康熙耕織圖>에서 삿갓인 笠帽와 도롱이인 蓑衣를 입은 농민형상이 보인다.³⁾ 중국은 고래로 농업국으로 농경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고적 중의 소위 庶民은 대부분 농민을 지칭하고 있지만 농민이 농작에 착용하는 雨衣인 蓑衣는 사서 중의 기재도 많지 않고 현존하는 형상자료도 부족하여, 그 시원과 발달 과정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사료에서 가장 이른 “服飾”의 표현은 黃帝時代⁴⁾

* Corresponding author: Park chun-sun
Tel) 042-821-6824
E-mail) cspark@cnu.ac.kr

에 보인다. 당시의 의복은 상하가 서로 연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역사에서 말하는 소위 衣裳⁵⁾이다.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통하여, 의복은 한서를 막아주는 단순한 기능에서 탈피하여, 계급·존비를 상징하는 속성으로 발전되었다. 이리하여 의복은 봉건통치의 상징인 제복십이장(帝服十二章) 등의 제도를 낳았다.⁶⁾

나아가 제왕·후비·백관·서민 등의 복식양식은 엄격한 규정이 있어, 치국의 예의법도를 이루었다. 복식의 제도와 규정 또한 점차로 복잡하게 되어, 역대 사기의 『禮儀典』과 『輿服志』 등의 기재는 모두 명문규정이 있어 각종 신분제에 따라 구별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예복·조복·공복과 연거복의 구별이 있었고, 각 계층의



<그림 1> 孔子聖蹟圖
(中國古代服飾研究,
p. 449)



<그림 2> 康熙
耕織圖 (中國古代
服飾研究, p. 484)

양식·복색·재질에 명확한 법제가 있어 독특한 중국복식의 특징을 낳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복식의 개판은 그 대상이 귀족복식에 관한 생동한 기록이다.

이와 같이 왕공 제후 등의 복식습속은 역사상 적지 않은 논저가 있으나, 서민들의 복식은 그 문물 기록이 매우 적어 학자들의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 즉 농작에 종사자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에 대한 기록은 사서나 벽화나 도용 등 문물자료에도 표현이 적어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노동하는 서민 계급에 관한 기록은 복식사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야외 농작이나 외출 시에 풍우를 막아주는 雨具는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중국 농민들이 사용하였던 우의에 대하여 그 시원의 형태와 그 전개과정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이리하여 중국 우의의 근원과 그 양상이 밝혀지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동양삼국의 우의의 기원이 되는 중국의 우의를, 사적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의 雨具라는 용어 속에는 雨衣·雨帽·雨鞋·雨傘 등이 포함되었으나 본 논문은 우선 雨衣 연구로 한정하였고 나머지 우구는 후속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보통 비옷이라 부르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雨衣로, 폴로엮은 도롱이를 사의(蓑衣)로, 기름 먹인 비단으로 만든 것을 油衣라고 정의하여 본 논문에서 이들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지역적인 범위는 중국에 한하고, 시대적으로는 우구가 농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여 중국의 기록이 남아있는 춘추시대부터 시작하여 가까이는 청대 이전까지 살펴본다. 우구를 사용한 계급은 그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로는 평민에서 위로는 황제 및 귀족계급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상류층에 있어서도 외출이나 수렵 등 야외행사시에 풍우를 만날 때 우구를 착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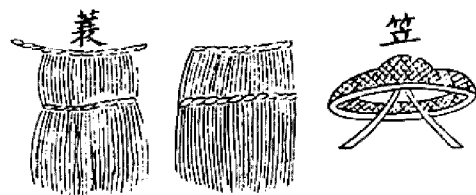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중국의 고전명저 및 소설·희곡·시집 등 그리고 현대 저술된 중국의 서적이다. 연구의 방법은 서론에 이어 본론에서는 雨衣로서의 최초인 사의(蓑衣), 다음에 우의로서 油衣를 살펴보고 최후로 결론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II. 雨衣로서의 蓑衣

1. 고사료에 표현된 蓑衣

우선 중국의 고사료에 나타난 蓑衣의 대한 기록은 『詩經』에 처음 보인다. 『시경』은 고대 중국의 풍토 사회를 배경으로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을 노래한 최고의 시가집으로 여기서 하사하림(何蓑何笠)이라는 표현이 있다. 漢의 毛亨傳⁸⁾에 毛亨은 蓑를 비를 위한 것이고, 笠은 더위를 피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고대 종교적 정치적 의례를 모은 유가 경전의 하나인 전국시대 『儀禮』에 고차대사림(藁車戴蓑笠)⁹⁾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蓑衣는 주대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蓑衣는 『三禮圖』의 <그림3 蓑笠>와 <그림4 蓑笠>은



<그림 3> 蓑笠 (三禮圖)



<그림 4> 蓑笠
(三才圖會)

「三才圖會」의 蓑笠¹⁰⁾으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蓑는 雨衣이며 詩經의 何蓑何笠은 그것을 말한다. 蓑는 雨笠과 더불어 더위를 피하는 것이다. 唐韻에 말하길 蓑는 원래 풀이름으로 雨衣를 만들며, 발석(撥石)이라고도 한다. 설문에 秦은 그것을 비(蓐)라 하였고, 爾雅의 高屨(蒲侯)는 사초(莎草)의 별명이다. 蓑衣는 莎草로 만들어 蓑와 莎는 동음이며, 사설등립(蓑薛笠笠)은 오늘의 蓑雨具 중 제일 가볍고 편리하다”. (<그림 5 莎草>참조)



<그림 5> 莎草
(三才圖會)

나아가 명대 李時珍의 「本草綱目」 故蓑衣釋名¹¹⁾조에 “蓑衣는 蓑草로 엮어 만든 옷으로 비를 피하는 도구이다”. 「本草拾遺」¹²⁾에서 陳藏器는 짐계벌레에 물린 상처는, 蓑衣를 태운 재를 기름에 섞어 바른다고 하였다.

이들 고사료에서 蓑衣의 語彙를 살펴 보면, 더위와 비를 피하는 蓑衣는 주대부터 존재하였고, 蓑·莎는 동음이어서, 蓑衣와 莎衣는 같은 의미이다. 나아가 蓐라는 단어도 골풀로 만든 蓑衣를 지칭하고, 蓑衣는 발석이라고도 하였다.

2 고대 詩文 등에 나타난 蓑衣部 기록

피사(披蓑)·피사(被蓑) : 漢代의 「山海經」, 唐代 崔道融의 詩 「田上」과 그리고 명대 李東陽의 「藤蓑次陳公甫韻」에 披蓑¹³⁾란 용어가 있다. 나아가 晉代 葛洪의 「神仙傳」과 「管子」·「淮南子」·「宋史」에도 被蓑¹⁴⁾라는 표현이 보인다. 여기서 披는 被와 같은 의미로 피사라고 하는 것은 蓑衣를 입고 있는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녹사(綠蓑)·녹사의(綠蓑衣)·청사(靑蓑) : 唐代에 위장(韋莊)의 詩 「桐廬縣作」과 宮大用의 詩 「七里灘」에 綠蓑¹⁵⁾라는 표현이 있고, 같은 시기 張志和¹⁶⁾의 詩 「漁父」에 綠蓑衣¹⁷⁾가 있다. 송대 羅大經의 「鶴林玉露」에 황모청사(黃帽靑蓑)¹⁸⁾라는 표현이 보인다. 녹사·녹사의·청사는 초(草)로 편성하여 만들어 그 사의가 초록색을 띠고 있음을 말한다.

연사(煙蓑) : 唐代 鄭谷의 詩 「郊園」와 송대 陸游의 詩 「溪上小雨」, 元代 陳泰의 「漁父詞」에 煙蓑¹⁹⁾라는 표현이 보인다. 고대의 잇구 중에 가랑비를 煙雨라 하여, 연사란 가랑비에 입는 사의를 말한다. 그러나 煙蓑는 전의되어 공사의 속박없이 우유자적(優游自適)하는 경지를 말하기도 한다.

우사(羽蓑) : 明代 屠隆의 「考槃餘事」에 표현된 우사(羽蓑)²⁰⁾라는 것은, 蓑衣의 미칭으로 그 모양이 조우(鳥羽) 즉 새의 깃과 비슷함으로 그 명칭이 되었다.

백로사(白鷺蓑) : 「海物略名記」에 白鷺蓑²¹⁾는 江東 즉 양자강 하류 南岸 지방에서는 백로 머리의 깃털을 취하여 蓑衣를 만들어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또한 清厲荃의 「事物異名錄」과 「自治通鑑」에도 백로사²²⁾가 있어, 당시 해오라기의 깃털로 만든 蓑衣가 존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白鷺蓑는 鷺蓑라고도 하며, 백로의 羽毛로 만든 피풍 형상의 의투이다.

옥침사(玉針蓑) : 「홍루몽」에 피오(皮襖)와 괴자(褂子)를 입고 허리를 매고 그 위에 옥침사²³⁾를 입고, 사당극(沙棠屐)을 신었다고 한다. 옥침사는 청대에 섬세한 사의를 말한 것으로, 백옥초로 편성한 것이다. 사당극은 사당목으로 만든 우혜를 말한다.

종의(棕衣) : 唐에 韋應物의 詩 「棕衣居士」에 棕衣居士²⁴⁾라는 표현의 棕衣는 종려(樓欄)섬유로 편성한 우의를 말한다. 종려로 만든 우구는 棕衣만이 아니라 棕帽도 있었다.

사의(莎衣) : 唐代의 「唐摭言」에 進士인 許孟容은 綿襖子를 입고 그 위에 莎衣를 입었다고 한다.²⁵⁾ 「宋史」에 의하면 하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일생을 莎衣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사의도인(莎衣道人)²⁶⁾이란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송대에 楊朴의 「莎衣」²⁷⁾라는 시가 있다. 莎衣²⁸⁾는 莎草로 만든 옷으로²⁹⁾, 莎草는 우리나라에서는 香附子³⁰⁾라 한다. 이것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沙地에 자생하여 5 6월경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莎衣도 蓑衣와 동의어이다.

단사(短蓑) : 唐代 孟郊의 「淡公詩」에 短蓑³¹⁾가 있고, 나아가 宋代 田錫의 시 「牧牛圖」에도 短蓑³²⁾가 있다. 이들은 蓑衣의 옷길이가 특히 짧은 것을 말한다.

어사(漁蓑) : 宋代 蘇軾의 시 「乘舟過賈收水閣收不在見其子」에 漁蓑³³⁾가 있는데, 소나기가 漁蓑를 적신다는 의미이다. 「圖畫見聞志」에 鄭谷의 시에 漁蓑³⁴⁾가 있고, 송의 陸游의 「老學庵筆記」에 漁蓑와 襪蓑衣³⁵⁾가 있다. 어사는 어부가 입는 蓑衣를 말하고 있다.

발석(撥擗) : 춘추시대 「國語·齊語」에 머리에 茅蒲를 쓰고 몸에는 발석³⁶⁾을 두른다고 하며, 당 劉禹錫의 「高陵令劉君遺愛碑」에도 撥擗³⁷⁾이 있고, 당대의 陸龜蒙의 시 「蓑衣」에 撥擗³⁸⁾이 있다. 羅愿 「爾雅翼」에 발석³⁹⁾은 莎草로 만든다고 한다. 清代 郝懿行的 「証俗文」에 撥擗⁴⁰⁾은 농가에서 비를 피하는 것으로 지금의 蓑衣라고 한다. 이것으로 사의보다 발석이라 부른 것이 오래 되었으며, 「管子·小匡」에 발석⁴¹⁾은 唐 尹知章注에 거친 옷으로 가난한자가 입는다고 한다. 蓑衣라는 명칭 이외에 발석도 방우복의 한 종류로 풀을 엮어 만들고 우설을 피하는데 사용되며, 통상 약림(箬笠)과 함께 착용하며 보통 농민과 어부가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발석도 雨衣를 표현한 다른 명칭이지만 발석이란 명칭이 더 오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발석은 우의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거칠게 짠 튼튼한 의복을 말하여 빈자의 의복이기도 하였다.

이외로 唐代에는 사의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50세가 되면 知命之年⁴²⁾이라 일컬으며 또한 이들을 蓑翁⁴³⁾이라 하였다. 그리고 당대 許渾의 시 「村舍」에 莎織 雨衣⁴⁴⁾라는 말은 향부자로 엮은 蓑衣를 말하는데, 이것은 당대에 이르러 蓑衣를 雨衣라고 표현한 것이다. 송·원시대에 蓑衣는 병졸들의 방우복이 되어, 「元史」에 의하면 당시에 모든 병사는 각각 사의 한 벌씩을 장비로 갖추고 있었다.⁴⁵⁾

명·청시대에 풍류를 즐기는 귀족사인은, 隱士를 나타내는 사립을 항상 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제작이 일반인들의 사립보다는 매우 정교하였다. 가령 「홍루몽」 중에 가보옥은 섬세한 玉針蓑를 입고, 가늘게 가른 등피(藤皮)로 편성하고 桐油를 칠한 금등림(金藤笠)을 머리에 착용하여 젊은 여인들의 찬탄을 받았다고 한다.

이상은 고대 시문을 통한 다양한 蓑衣의 표현들이다.

먼저 蓑衣를 입고 있는 상태로서 披蓑, 사의의 재료인 풀이 녹색을 띠고 있어 綠蓑, 이슬비에 입는 煙蓑, 사의 형상이 새털과 흡사하여 羽蓑, 백조의 깃털로 엮은 백로사, 정교하게 제작한 홍루몽의 옥침사, 종려로 만든 棕衣, 莎草로 만든 莎衣, 길이가 짧다고 하여 短蓑, 어부가 입으면 漁蓑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풀로 엮은 草衣인 蓑衣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III. 雨衣로서의 油衣

앞에서 풀로 엮어서 만든 雨衣인 蓑衣에 관한 정황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러한 원시적인 사의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재질의 油衣가 나타난다.

油衣⁴⁶⁾가 처음으로 사서에 보이는 것은 「隋書·煬帝本紀」에 비롯된다. 이 내용은 황제 일행의 출렵 행차 도중에 비를 만났는데 신하들이 황제에게 油衣를 바쳤으나, 혼자 만이 유의를 입을 수 없다고 한 고사를 전하고 있다.

이와 흡사한 내용이 「唐書·谷那律傳」에도 보인다. 태종이 출렵 시에 비를 만났는데, 유의⁴⁷⁾가 있었으면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록이다. 나아가 唐代 「通典」에 高宗 永徽元年(650)겨울에 왕의 출렵 시의 油衣⁴⁸⁾에 관한 기사가 실려있다. 742년 玄宗 天寶元년에 지금의 洛陽에서 油衣⁴⁹⁾를 進貢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당 李賀의 「江樓曲」에 油衫⁵⁰⁾이라는 표현이 있다.

송대 「事物原始」(紀原)에는 「左傳」의 기록을 인용하여 모든 雨具는 춘추시대 齊人 陳成公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 晉 杜預에 「集解」에 雨衣⁵¹⁾는 油絹으로 만들었으나 나중에 油紙로 대신하였으며, 여전히 陳成公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宋代 莊季裕의 「鷄肋編」에 河東 즉 지금의 山西省에서는 대마유를 식용으로 하고, 들깨유는 雨衣⁵²⁾를 만든다고 하였다. 宋 吳曾의 「能改齋漫錄」에 油衣⁵³⁾라는 표현이 보이고, 송 陶穀의 新語를 모은 「清異錄」에 의하면, 五代의 吳國에서 절도사를 지냈으며 불법을 즐겼던 張崇은 사치생활이 극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우천 시에 그의 從者 수천인이 모두 蓮花帽와 琥珀衫⁵⁴⁾을 입었다.

「金史·世宗本紀」에 의하면 백관에서부터 황제를 모시는 관리까지 모두 순황색의 油衣⁵⁵⁾를 입지 못하도록 하였다. 송대 왕무(王楙)편찬의 「野客叢書」에 의하면 唐高祖 武德(618-626) 初부터 隋制를 사용하여 天子常服에 黃袍를 입기 시작하여, 士庶에게 황색을 금한

것은 여기서 비롯된다고 한다.⁵⁶⁾

명 劉若愚의 『酌中志』에 雨衣⁵⁷⁾·雨帽의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인 즉 雨衣에 그림을 그린다고 한 것을 보면, 이 재질은 유견입에 틀림없다. 명 張岱의 『夜航船』에 雨傘·油衣⁵⁸⁾·笠子를 사용한 후에 우물물로 씻어두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대에 이르러 조선의 油布⁵⁹⁾가 중국에 들어가 인기를 모았다고 한다.

나아가 청대의 段玉裁는 좌전 집해의 雨衣는 초제의 우구가 아니고 청대의 油布衣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춘추시기에 중국의 일반 서민들은 이미 식물성의 梧桐油의 이용을 알고 있어, 이 기름을 직물에 도포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성의 유포를 만들어 油衣를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靑史稿·輿服志』에 雨衣⁶⁰⁾는, 상당히 발전된 우구로 황제를 비롯한 유관자들의 油衣이다. 이들 청대 유구는 그 재질만이 아니라 그 형상도 일반 관복의 형상과 흡사한 피풍이나 일상복의 포나 패 모양을 하고 그 구성도 관복모양이다.

이상 문헌에 나타난 油衣로서의 雨衣를 살펴보았다. 油衣가 춘추시대에 있었다고 하나, 실제로 기록은 없으며, 후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유의는 문헌에 의하면, 隋代에 처음 보이고, 唐代에 일반화되었다. 송대에는 사회적인 사치풍조로 인하여 호박삼(琥珀衫)이라는 유의도 보였는데, 琥珀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단지 사치스러운 雨衣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金代에는 油衣가 황색이라 하여 황제전용으로 관리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명대에 油衣가 특별히 유행하였는데 조선에서 들어온 油布의 유의가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清代에는 雨衣가 발달하여 그 모양도 일반 의복과 비슷하였으며, 색상이나 형상 등이 황제를 비롯한 관리의 품계에 따라 雨衣制度가 엄격하였다. 전술한 隋煬帝의 고사는 남북조 이후 유포의 사용이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일반서민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IV. 결론

본 논문은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 雨衣에 관한 기록을 찾아 그 종류와 발전과정을 고찰해 본 것이다. 먼저 蓑衣로서의 우의, 다음에 油衣로서의 우의를 정리하였고, 이들의 재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상고시대 사람들은 풍우에 대비하여 처음에는 단지 야초를 엮은 蓑衣를 몸에 둘렀다. 춘추전국시대에 백성들은 비가 오면, 통상 풀로 엮은 초의인 사의를 입고 노

작에 종사하였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풀로 엮은 사의에 만족하지 않고, 사의 제작 재료에 변화가 일어나 대략 당대에 이르러는 棕制의 우의가 출현하였다. 당대에는 특히 사의가 정교하게 제작되어, 50세가 넘는 사의를 입은 사람을 蓑翁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송·원시대 사의는 군대 사병의 방우복으로 비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청시대에 귀족사인들의 蓑笠 착용은 풍류나 隱士의 상징으로 삼았다. 청대는 관복양식의 우의가 있었지만 강회경직도에서 보듯이 여전히 서민들은 전통적인 사의를 입고 있었다.

草衣인 사의는 원래 의복 발생의 초기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가난한 자의 의복이기도 하였다. 蓑衣의 재료는 그 지방 토지특유의 풍부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이들 식물류는 단순한 환경을 좋아하여 대개 물가에서 자생하는 사초류와 벼집 등이다. 사의는 고래로부터 농촌과 어촌에 긴 전통을 갖고 전해져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근대 의태문화의 전래에 의해 도회는 물론 농어촌에서도 사라졌다.

사의를 제외하고 고대에 油布로 만든 雨衣가 있었다. 춘추전국시대에 유의가 있었다고 하나, 문헌에는 수대부터 황제의 油衣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청대는 유의가 상당히 발달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油衣의 재료가 되는 유포는 비단에 기름을 도포하여 몸에 습기가 스며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기름은 식물성으로 콩기름·들깨기름·오동유가 흔히 사용되었다.

蓑衣 착용의 형상은 전술한 <孔子聖蹟圖>나 <康熙耕織圖>에서 그 착용모습을 볼 수 있고, 『三才圖會』나 『三禮圖』에서 구성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油衣의 착용 형상과 구성도는 청대 이전은 찾아 볼 수 없지만, 청대 황제의 우의로 미루어 보아 피풍(披風) 형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구에 관한 연구 중, 본 연구는 雨衣만을 다루었으나 나머지 우모·우혜·우산 등의 우구 연구는 후속연구로 돌리기로 한다.

주제어 : 우의(雨衣), 사의(蓑衣), 유의(油衣)

- 1) 『河緯地·蓑衣』持贈蓑衣應有意五湖煙雨好相尋.
- 2) 『김굉필·삿갓세 도롱이 낚고』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고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미를 들고 산으로 들어가 밭을 바베 매다가 나무 그늘 아래 누웠더니 목동이 소와 염소를 몰고 와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 3) 沈從文 (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商務印書館, p. 449, p. 484.
- 4) 「帝王世紀」黃帝始去皮服爲上衣以象天爲下裳以象地.
- 5) 「易·繫辭下」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蓋取諸乾坤.
「注」垂衣裳以辨貴賤乾尊坤卑之義也.
- 6) 「尚書·益稷篇」帝曰予欲觀古人之象日月星辰山龍華蟲作會宗彝藻火粉米黼黻絺繡以五色彰施于五色作服汝明.
- 7) 「詩經·小雅無羊」爾牧來思何蓑何笠. 傳何揭也蓑所以備雨笠所以禦暑. 箋草衣也. 疏蓑唯備雨之物笠則元以禦暑兼可禦雨.
- 8) 「漢書·毛亨傳」蓑所以備笠所以御暑.
- 9) 「儀禮·既夕禮」藁車載蓑笠. 注蓑笠備雨服.
- 10) 「三才圖會·蓑笠」蓑雨衣無羊詩云何蓑何笠毛註曰蓑所以備雨笠所以禦暑唐韻云蓑草名可爲雨衣又名襍襍說文秦謂之草爾雅曰蒲侯莎蓑衣以莎草爲之故音同莎又名薛六韜農器篇曰蓑薛笠笠今總謂之蓑雨具中最爲輕便.
- 11) 「本草綱目」蓑草結衣禦雨之具管子云農夫首戴茅蒲身服襍襍卽此也.
- 12) 「本草拾遺」陳藏器曰蠅蝮溺瘡取故蓑衣結燒灰油和傅之.
- 13) 「山海經·西山經」三危之山有獸焉其狀如牛白身四角其毫如披蓑.
「崔道融·田上」兩足高田白披蓑半夜耕.
「李東錫·藤蓑次陳公甫韻」采藤復采藤日夕費斤斧製爲身上蓑人古衣亦古借問製者誰白沙乃蓑祖冉冉綠蓑衣蕭蕭白沙落披蓑向江水顧影還獨語愛此勿輕損春江正多雨.
- 14) 「神仙傳」尹思遺兒視月中有異物否兒曰今年當大水中有一人被蓑帶劍.
「管子·禁藏」被蓑以當鎧鑄菹笠以當盾櫓.
「淮南子·說林訓」被蓑救火毀瀆而止水.
「宋史·鄭文寶傳」請文寶欲一見慮衛者難之乃被蓑荷笠.
- 15) 「韋莊·廬縣作」白羽鳥飛嚴子瀨綠蓑人釣季鷹魚.
「宮大用·七里灘」第二折,那的是江上晚來堪畫處抖擻着綠蓑歸去.
- 16) 「三才圖會·張志和」張志和字不同唐金華人自號煙霞釣徒.
- 17) 「張志和·漁父詞」青箬笠綠蓑衣斜風細雨不須歸.
- 18) 「羅大經·鶴林玉露」卷二 金貂紫綬誠不如黃帽青蓑朱轂繡鞍誠不如芒鞋藤杖.
- 19) 「鄭谷·郊園」煙蓑春釣靜雪屋夜碁深.
「陸游·溪上小雨」掃空紫陌紅塵夢收得煙蓑雨笠身.
- 「陳泰·漁父詞」雨笠煙蓑難入手.
- 20) 「屠隆·考槃餘事」卷四 或值西風扑面或教飛雪打頭于是披羽蓑頂羽笠執竿烟水儼然米芾.
- 21) 「海物略名記」江東人取白鷺頭上翰毛爲接齒曰白鷺蓑或以紅翎間之.
- 22) 「事物異名錄·服飾·巾」接離一名白鷺絨絨一作蓑.
「自治通鑑·齊東昏侯永元二年」后宮服御極選珍奇府庫舊物不復周用又訂出雉頭鶴鬣白鷺絨
「元胡三省注」白鷺絨鷺頭上毳也. 「詩」疏曰鷺水鳥毛白而潔頂上有毛毳然此卽絨也.
- 23) 「紅樓夢」第49回寶玉此時喜歡非常忙喚起人來盥洗已畢只穿一件茄色哆羅呢狐狸皮襖罩一件海龍小鷹膀褂子束了腰披上玉針蓑帶了金藤笠登上沙棠屐忙忙的往蘆雪庭來.
- 24) 「韋應物·寄廬山棕衣居士」兀兀山行無處歸山中猛虎識棕衣.
- 25) 「摭言」許孟容進士及第學究登科時號綿襖子上著莎衣.
- 26) 「宋史·莎衣道人傳」莎衣道人姓何氏淮陽軍胸山人祖執禮仕至祖議大夫道人避亂渡江常舉進士不中與末來平江一日自外歸棹若狂者衣白襪畫丐食於市夜止天慶觀久之衣益敝以莎緝之嘗遊妙嚴寺臨池見影豁然大悟人無貴賤問休咎罔不奇中會有瘡者乞醫命持一草去旬而愈衆翕然傳莎草可以愈疾求而不得者或遂不起由是遠近異之孝宗一夕夢莎衣人跣哭來弔者訊之曰蘇人也.
- 27) 「楊朴·莎衣」軟綠柔藍著勝衣倚船吟釣正相宜蒹葭影裏和烟臥茵苔香中帶雨披狂脫酒家春醉後亂堆漁舍晚時直饒紫綬金章貴未肯輕輕博換伊.
- 28) 「司空圖·雜題詩」樵香燒桂子苔濕挂莎衣.
- 29) 「詩·小雅·南山有臺·疏」臺夫須釋草文云陸璣疏云舊說夫須續根草地賴根地毛廣雅時珍曰別錄止云莎草不言用苗用根後世皆用其根名香附子而不知莎草之名也其草可爲笠及雨衣疏而不沾故子從草從沙亦作蓑字.
「北史·豆盧寧傳」乃相去百步懸莎草以射之.
「李遠·黃陵廟詞」黃陵廟前莎草春黃陵女兒舊裙新.
- 30) 「本草·莎草·香附子」釋名雀頭香草附子水香稜水巴戟水莎侯莎莎結夫須續根草地賴根地毛 時珍曰別錄止云莎草不信用苗用根後世皆用其根名香附子而不知莎草之名也.
「三才圖會·莎草」莎草根文名香附子生田野處處有之或云交州者.
- 31) 「孟郊·送淡公詩」脚踏小船頭獨速舞短蓑.
- 32) 「田錫·牧牛圖詩」何日承平如畫裡短蓑長笛一川秋.
- 33) 「蘇軾·乘舟過買收水閣收不在見其子」青山來水檻

- 白雨滿漁蓑.
- 34) 「圖畫見聞志」鄭谷有雪詩云江上晚來謀畫處漁人披得一蓑歸時人多傳誦段贊善善畫因採其詩意景物圖寫之曲盡瀟灑之思特以贈谷谷爲詩寄謝云愛余風雪句幽絕寫漁蓑.
- 35) 「陸游·老學庵筆記」綦翰林叔厚謝宮祠表云雜宮錦於漁蓑敢忘君賜話玉堂於菡舍更覺身榮時歡其工羣碎錄縑敝衣襪襖蓑衣雨衣.
- 36) 「國語·襪襖」首戴茅蒲身衣襪襖.
- 37) 「劉禹錫·高陵令劉君遺愛碑」杰徒歡呼奮襪襖而舞.
- 38) 「陸龜蒙·蓑衣」山前度微雨不廢小澗漁上有青襪襖下有新脰疏.
- 39) 「羅憲·爾雅翼」卷8台所以御暑笠所以御雨襪襖以莎草爲之今人作笠亦多編笋皮及箬葉爲之編之若甲毳毳而垂故雨順注而下.
- 40) 「郝懿行·証俗文」卷2 案襪襖農家以御雨卽今蓑衣.
- 41) 「管子·小匡」今夫農群萃而州處宙其四時權節具備其械器用首戴芻蒲身服襪襖露體塗足暴其髮膚盡其四支之力以疾從事于田野唐尹知章注襪襖謂粗堅之衣可以任苦者著也.
- 42) 「論語·爲政」五十而知天命.
- 43) 「杜牧·齊安郡晚秋詩」可憐赤壁爭雄渡唯有蓑翁坐釣魚.
- 44) 「許渾·村舍詩」自剪青莎織雨衣南峰烟火是柴扉.
- 45) 「元史·兵志」蓑衣一領.
- 46) 「隋書·煬帝紀上」上尤自矯飾當時稱爲仁孝嘗觀獵遇雨左右進油衣上曰士卒皆霑濕我獨衣此乎乃令持去.
- 47) 「唐書·儒學上·谷那律傳」那律遷諫議大夫兼弘文館學士從太宗出獵遇雨沾漬因門曰油衣若爲而無漏邪那律曰以瓦爲之當不漏帝悅其直賜帛二百段.
- 48) 「通典·卷三十六」永徽元年冬出獵在路遇雨因問諫議大夫谷那律曰油衣若爲不得漏.
- 49) 「新唐書·地理志三」洛州廣平郡望本武安郡天寶元年更名土貢絁綿紬油衣.
- 50) 「李賀·江樓曲」蕭騷浪白雲差池黃粉油衫寄郎主.
- 51) 「集解」凡雨具大抵始於周左傳陳成衣製杜預注曰製者雨衣也炙穀子曰以油絹製之及油帽後世易之以油紙乃春秋陳所製始.
- 52) 「莊季裕·鷄肋編」卷上 河東食大麻油氣臭與荏子皆堪作雨衣.
- 53) 「吳曾·能改齋漫錄」孔公借油衣叟曰某寒不出熱不出風不出雨不出未嘗置油衣也.
- 54) 「清異錄·衣服·雨仙」張崇帥廣在鎮不法酷於聚斂從者數千人出遇雨雪皆頂蓮花帽琥珀衫 所費油絹不知紀極市人稱曰雨仙.
- 55) 「金史·世宗本紀」大定十二年五月禁百官及承應人不得服純黃油衣.
- 56) 「野客叢書·三·禁用黃」自唐高祖武德初用隋制天子常服黃袍遂禁士庶不得服而服黃有禁自此始.
- 57) 「劉若愚·酌中志」卷19 雨衣雨帽油爲之先年亦有蠶茧紙爲之今無矣御前大臣值穿紅之日有紅雨衣彩畫蟒龍方補爲貼里式者.
- 58) 「張岱·夜航船·物理部·器用」雨傘油衣笠子雨中來須以井水洗之不爾易脆壞.
- 59) 「和漢三才圖會·衣服類·襪襖」按雨衣卽合羽也用羅紗羅世板襪褐之類更佳朝鮮油布次之.
- 60) 「清史稿·輿服志」雨衣雨蓑民公侯伯子文武一品官御前侍衛各省督撫皆用紅色二品以下文武官皆用青色.